

성신聖神과 성령聖靈 용어의 기원

- 미사경문이 바뀐다는데, 성신으로 다시 바꾸어야? -

1. 루지에리 신부의 저술 천주성교실록(1583)에서는 천주 제삼위를 사피리다 삼다 성신(斯彼利多三多聖神也)이라 하였다.

성교실록 天主制作天地人物章(p. 9-12)에, 오천오백오십(5,550)여년 이전에는 아무 것도 없이 천주께서만 계셨고, 천주의 은덕으로 6일 동안 천지인물을 제작하셨다.(自五千五百五十餘年以前之時 別無他物 只有一天主 欲制作天地人物 施之恩德 故於六日之間).¹⁾ 이렇게 天主를 비롯하여, 靈魂(云이 위에)과 天堂(p. 2, 14), 天神과 路祭弗爾(Lucifer; 10, 13), 元祖 亞當과 厄禰(11), 地獄과 魔鬼(13), 逐之出地堂(14), 地堂快樂之所(15)라 하였다. 天主性章(p.20-22, 27)에서는, 三位一體에 대하여 논하면서 伯瑣亞(Persona) 중 제 1위가 罷德肋(Pater)이요, 2위가 費畧(Filius)이요, 3위가 斯彼利多三多(Spiritus Sanctus)라 하였다. 그 신성의 오묘함은(此神性之妙), 파덕릭은 아버지요(罷德肋父也), 제 2위 비약은 아드님이요(費畧子也), 제 3위 사피리다 삼다는 성신(斯彼利多三多聖神也)으로서, 비록 삼위로 나뉘어 계시나 실로 한 체(位雖分三體實唯一)이시요, 이는 언어로 형용하기 극난한 신묘함이다.(神妙之極難以言語形容).

애유략(알레니) 신부의 천주강생언행기략(1635) 1권 2에서, ‘而天主費畧, 不因人道, 惟以聖神之功, 即於瑪利亞腹中, 全能默授, 自成聖胎, 賦之靈魂, 以人性接己性, 真為人, 真為天主矣.’ (천주 성자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신의 공으로, 마리아 복중에 잉태되시어 영혼을 받아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참인간이요 참천주이시다) 하였다.

2. 아주 특이한 형태로, 세례 형식(forma)을 한자로 가차한 라틴어 경문으로 나타낸 사례를, 리치 신부의 [天主敎要](f. 14a-b)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로마의 포교성성 고문서고에 있다. 이 문서는 리치가 포르투갈 출신의 보좌신부였던 Giovanni Alvarez 신부에게, 아마도 1605년에, 직접 손으로 써서 준 것이라고 하였다.

< 세례성사의 형식 > 拔弟斯摩반제사마(= batesimo) 經言

某 厄禰 德 拔弟作 引 諾米擲 罷德利斯 厄德 費離意 厄德 斯彼利都斯 三隔弟 亞孟.
N. Ego te baptizo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Amen.
Meu, Uongo te patizo in nomino Patelise uote Feilii uote Sepeilituse Sancoti.
Iamom.

3. 70여 년 후에 남회인(Ferdinand Verbiest, 南懷仁은 《善惡報略說》도 지음) 신부는 [敎要序論]에서, 2가지 양식으로 된 한문세례형식을 표현하고 있다.²⁾

1) 성교요지 제 1장. -육일역작 선벽천지 참조.
2) 김건순은 1801년 자백에서, 주문모 신부를 만나기 한참 전인 1789년에 이미 [교요서론]을 읽었다고

伯多祿 我洗爾因父 及子 及聖神之名者 亞孟.
 或云伯多祿 我洗爾因罷德肋 及費畧 及斯彼利多三多名者 亞孟.

70 여년 사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호칭이 모두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罷德利斯에서 罷德肋으로, 厄德(et)은 한자 及 으로, 費離意에서 費畧로, 斯彼利都斯 三隔弟에서 斯彼利多三多로 바뀌었고, 亞孟만 그대로 남아있다. 아예 父, 子, 聖神으로 중국인들이 알아들을 호칭을 이제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예수회의 이러한 전통은 1689년에 상해에서 간행된 [救世主預像全圖], 主教 亞弟盎<Etienne, 스테파노> 郎 准, 金陵天主堂藏板, 要理六端에서도 지속되고 있었다.

4. 그러나 파리 외방 전교회의 바세 신부는 1704. 3. 4.에, Charles Maigrot (1652-1730, mep+) 주교에게 쓴 편지에서, 因父 及子 及聖風之名, 我洗爾. 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유효한지를 묻고 있다.³⁾ 성신이 성풍으로 바뀌고 있고, 之名者를 之名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다음번에, Basilio Brollo와의 논의 중에서는, ‘我因獨一之父之子之聖神之名洗爾’로 제안하였다.⁴⁾

5. 경세금서편람, 1640년 양마낙 술, 1848 여 약한 주, 주교 열라니모(예로니모) 공준의 글에서, 성삼에 대한 주해에서 여약한은 성부,성자,성신을 오늘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성자야소는 만물을 겸하여 조성하시고 구속하신 공이 있다고 하였다.(1권 P.4, 14, 15.)

6. 본래 성령의 용어는 천주교에서 지금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 성령과 성신은 전혀 다른 용어였다. 알레니 신부의 천주강생언행기략 4권 10에서, ‘領博者, 地中古聖靈魂所居安樂之處’(령박領博 ling bo는 땅속의 옛 구약의 성인들의 영혼들이 거하는 안락지처) 라 하여, 성령혼은 성인들의 영혼을 뜻한다. 양마낙(디아즈)의 경교유행중국비정전에서 성모님의 거룩한 영혼을 ‘성모성령’이라 표현하였다.(성모님이 원죄가 없으신 무염시태와 관련하여, 聖母聖靈、乃天主聖殿(=성모님의 성령(혼)은 천주성전). 또한 양마낙은 암부(暗府=지옥 4곳)를 언급하면서, 受難救世之後、乃啟天門、故吾主聖靈降此、以携古聖、偕出升天、謂破暗府者故、信經第五端曰、我信其降古聖之寄所、是也、(예수님이 수난하시어 세상을 구원하시고 천당문을 여시어, 오주(의)성령이 옛 성인들을 데리시고 함께 승천하신 내용이, 신경의 제5단락으로, 고성소에 내리심을 믿는다는 내용이다.)

7. 우리 한글본 성경직해광익에서는 스비리도 산도, 성신이라 하였다.

한글본 성경직해광익 제 1권(천진암성지 자료집 114권에 수록), 여수 성탄전 데 사 주일.

밝히고 있다.(cf. 노용필, 18세기 천주교리서); 노용필역, 교요서론 VII, <부산교회사보 69호>, 2011 참조.

3) 白日升神父, 開拓四川教會之先驅, 書信集과 中國福傳建議書, 2012 Edition You Feng, P. 402.

4) 白日升神父, 앞의 책, p. 403.; cf. Margiotti, p. 337.

당무지구; 위죄인 7 | 과 - 죄인의 허물 고치길 위함이라.

축문; 복망 튜쥬 뢰이대능, 득탈장르 | 위험, 뢰이구원 득향안전, 아쥬여수, 허 | 성부, 허 | 성신. 아문.⁵⁾

업드여 튜쥬스기 브라느니 네 대능을 힘닙어 창르에 위험허물 버셔나길1 어드며 네구원허심을 힘닙어 평안하고 온전허물 누리길1 엇게허소서 아쥬 여수1 성부와 흡스기 허시며 성신과 흡스기 허샷다. 아문. (한글 28).

여수 성탄전 데 삼 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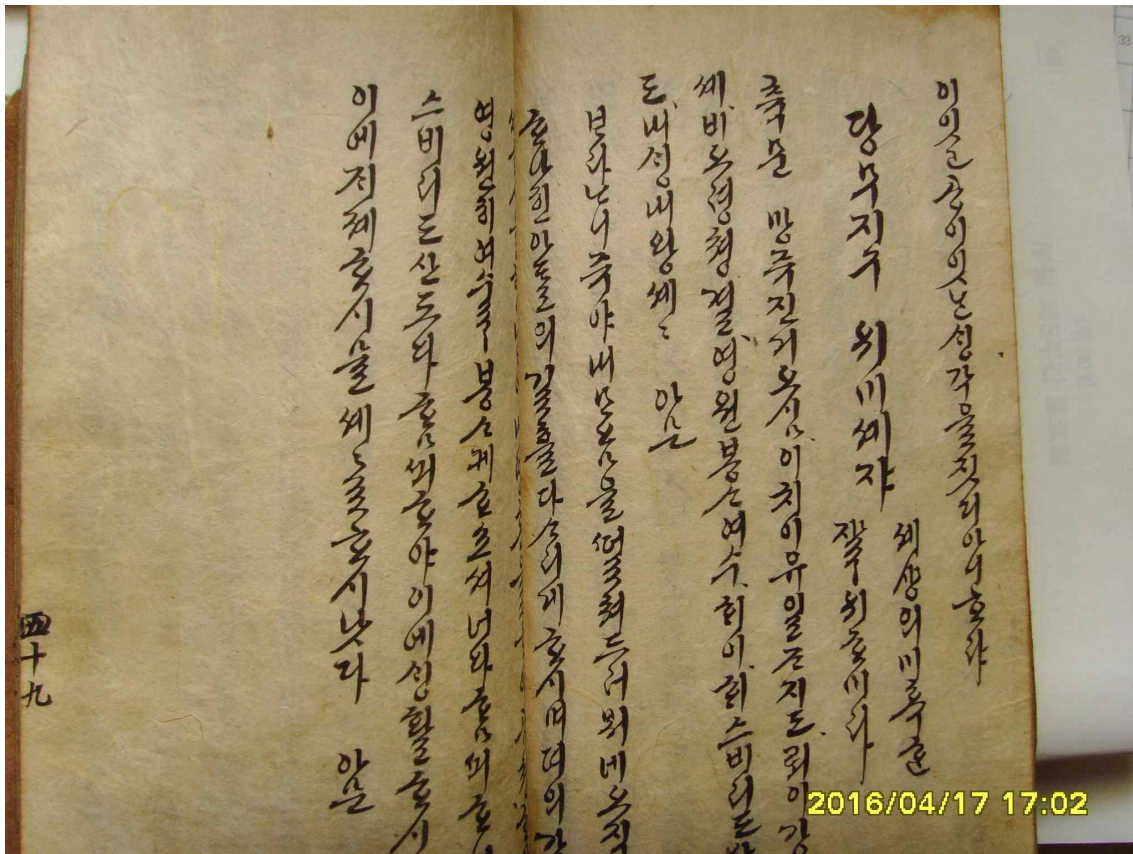
당무지구 위미세자 ; 세상의 미혹한 자를 위함이라.

축문; 망쥬진거오심, 이치이유일즈지도, 뢰이강세, 비오령청결, 영원봉스 여수, 허 | 이, 허 | 스비리도(사피리다)산도(삼다)⁶⁾, 내생내왕세세. 아문.
斯 彼 利 多 三 多

바라나니 쥬야 내 무음을 스덜쳐 드러뵈 네 오직 허나힌 아들의 길흘 다스리게 허시며, 더의 강제허시믈 힘닙어 내 령혼으로 허야곰 청(결)허야 영원히 여수를 봉스케 허쇼셔. 너와 흡스기 허며 스비리도 산도와 흡스기 허야, 이에 생활허시고 이에 재세하심을 세세로 허시낫다. 아문.(한글 49).

5) 이 기도문은 성경광익의 한문을 우리말로 발음하여 옮긴 것이다. 그러므로 12년 이상을 중국 사천포 교지에 머물던(cf. 달래중 370) 앵베르 주교가 못 알아듣는 중국말로 우리 교우들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다함은,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cf. 22번 편지/4명의 통역을 두고 공동기도문을 번역했다고 한다.); 성경광익에서는 아맹이라 하였으나, 초중기에 우리 번역자들은 이를 아문이라고 음역하였다. 유

파치피코 신부의 편지 속에 들어 있는 성모송(1847년 6월 19일 홍콩, 여수와 아문)을 참조.
6) 성신을 여기서는 '스비리도 산도'로 음역하여, 한문 음이 아닌 라틴어를 이렇게 알아들은 듯하다.



8. 중국 천주교에서는 이상과 같이 성신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성신이라 하지만, 개신교의 중국어 성경에서는 천주교로부터 성신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다가, 1867년 위변역委辦譯부터 역본에 따라 성령을 병행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1960년경에 이르러 성령으로 통일하여 표현하는 듯하다.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천주강생언행기략 2권 3의 聖약한再三證 야소爲眞主(3)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신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吾所用水 只洗滌人形 生乎吾後 實在吾前 聖神洗滌人心⁷⁾).

7) 성교요지 48장의 주에 나오는 聖靈과 관련하여 성경을 살펴보면, 바제의 영국본 4장에서, 其將洗汝所 聖神 所火 - 聖神如白鴿(마두3장). 후에 로마본에서는 聖風으로 변하였다. 모리슨본 마가1, 8 (1814 & 1823과 馬殊曼1822)에, 惟其將以聖神風而施洗爾等矣 (12절 神風). 귀츨라프본(1839)에서, 惟彼以 聖神將是禮也. 대표역본(1853 상해 墨海書官)에, 而彼將以聖神施洗爾也. (12절 성신). 1867년 마가 전, 委辦역본적 官話譯本에, 他將用聖靈給你們施洗(12절도 성령). 1869년 신약전서 新鑄銅版에서도 聖靈. 1919초판 관화본에, 他卻要用聖靈給你們施洗(12절도 성령). 1967 香港 靈糧출판사에서, 將籍 聖靈 沐澤你們. 그러나 1933 瑄忱역본과 1934년 문리화합본, 그리고 1937년 福州士腔성경에서도 聖神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1949년 新經全集, 吳經能譯, 복음 瑪爾谷傳(彼將洗爾聖神矣)과 현재 홍콩 본의 마이곡 복음(他卻要以聖神洗你們) 등, 천주교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聖神으로

9. 우리나라 개신교의 한글본 성경에서는, 예수성교전서, 1887년 경성문광서원활판본에서, 성령으로 표기하고 있다.(말코복음 1장8절에, 나는 너희를 물에서 받침례하 오직더는 너희를 성령에서 받침례하리라 하더라. 12절도, 성령이 감동하여). 이같이 처음부터 성령이라 표기하였으나, 1900년(대한 광무 4년 경자)의 신약전서에서는 성신이라 표기한다.(사도행전 1, 8에, 성신이 너희게 림하시면). 이는 한국개신교의 한글본에서 1867년 위변역의 성령을 따른 것이거나, 혹은 1885년 상해미국장노회 중영대조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0.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성경직해광익에서 보듯이 ‘스비리도 산도’와 ‘성신’을 사용하여 왔고 자국어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성신으로 호칭하다가, 1971년에 개신교와 공동번역 신약성서를 내놓으면서부터 성령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뒤늦게 굴러온 돌(성령)이 앞서있던 돌(성신)을 밀어내버린 격이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공동번역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태여 천주교에서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 기회에 천주교에서는 더 이상 성령으로 호칭할 것이 아니라, 초기 예수회 선교사들의 고심한 노력이 서려있고, 우리 순교자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했던 그 용어인 성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야 동양의 천주교 용어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성모성령(=성모님의 거룩한 영혼)과 같은 표현과도 혼동이 되지 않을 것이다.

11. 참고로, 영어로 표기된 Holy Ghost(성신) 와 Holy Spirit(성령)의 용례를 살펴보면, 소순태의 문답 1850을 아래의 주소에서 참조하라.

http://bbs.catholic.or.kr/home/bbs_view.asp?num=3&id=28352&menu=question_and_answer 끝.

2017. 8. 15. 김학렬 若望 신부.

표기하고 있다. 참고로 1885년 상해미국장노회中英대조신약성경에서, I indeed have baptized you with water, but he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他將用聖靈與你們施洗). (10절에서는 Spirit (聖靈) 으로 표기하고 있다).